"티베트인들의 자유 염원 널리 알리고 싶어"

남현주씨와 티베트인 남편 텐진 잠양

땅끝마을~통일전망대 도보 종단 나서

"공안(중국 경찰)의 감시가 허술해지는 겨울철이 되면 수천명의 티베트인들이 정치적 자유를 찾아 히말라야의 험준한 설산(雪山)을 넘습니다. 망명 정부가 있는 다람살라를 찾아가는 거죠. 이 과정에서 상당수가 동상에 걸려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20대 후반의 한-티베트 커플이 억압받는 티베트인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이들의 처지를 세상에 알릴 목적으로 10일 남한 국토종단에 나섰다. 티베트인 남편 텐진 잠양(28)과 한국인 아내 빼마(27·한국 이름 남현주)가 그 주인공. 이들은 이날 오전 흰 사자 문양의 티베트 국기를 꽂은 배낭을 걸머지고 전남 해남의 땅끝마을을 출발해 임진각 통일전망대에 이르는 약 600km 대장정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들은 하루 20~30㎞씩 걸어 한달 뒤인 내년 1월 10일께 통일전망대에 도착할 예정이다. 숙식은 절이나 여관·찜질방 같은 곳에서 해결할 생각이다.

두 사람이 남한 종단을 결심한 것은 지난 가을. 인도 북부의 다람살라에서 한국식당 '리[ri:]'를 운영하고 있는 이들은 목숨을 걸고 중국을 탈출하는 티베트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이들에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심하다 남한 종단을 생각해냈다.

"왜 한국이냐"는 질문에 대해 잠양은 "한국은 티베트의 미래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유창한 한국말로 "36년간 일제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투쟁해 끝내 독립을 이뤄내고, 이후 경제성장을 통해 잘 살게 된 한국은 티베트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나라"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2002년에 결혼했다. 1990년대 말 중앙대 영어과 재학 중 인도 여행을 갔다가 잠양을 알게 된 현주씨가 2000년 인도 델리대학으로 유학을 가면서 교제가 본격화됐고, 백년해로를 맺는 단계로까지 발전했다.

결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특히 현주씨 가족의 반대가 만만찮았다.

티베트의 명문 귀족인 '렌첸창' 가문의 후손인 잠양의 아버지는 중국의 귀족 숙청작업 때 가까스로 몸만 빠져나와 망명길에 올랐다. 이런 환경 때문에 잠양은 한때 방황의 시기를 겪었다. 고교를 중퇴하고 등반객들의 짐을 날라주는 트레킹 가이드와 식당일 등을 하며 생활해 왔다.

"현주씨 부모님들은 결혼 3년이 지나면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으니 한국에 와서 살라고 권했지만 싫다고 그랬어요. 내 또래의 많은 티베트 젊은이가 고생하고 있는데 나만 혼자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잠양)

두 사람은 국토 종단이 끝나면 다시 다람살라로 돌아가 거기서 티베트 독립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고 이제 힘없는 노인이 된 사람들을 지원하는 '뗏바('돕는 이'라는 뜻의 티베트어) 운동'에 동참하며 살겠다고 했다. 해남=이정민 기자

jmlee@joongang.co.kr

잠양(왼)과 빼마(한국명 남현주) 커플이 10일 전남 해남 땅끝마을을 출발하기에 앞서 티베트 국기를 들고 포즈를 취했다.

"속기는 디지털 시대에도 쓸모 많아요"

본격 보급 나선 남상천씨

"한글의 경우 빨리 쓴다 하더라도 1분에 63자를 쓰는 게 고작입니다. 그러나 말로 할 때는 웬만하면 250자 이상 말할 수 있지요. 이 차이를 없애주는 게 1분에 300자까지 기록할 수 있는 속기예요. 디지털 시대라지만 배워두면 메모를 하거나 일기를 쓸 때 편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남천속기연구소(www.namcheonsokki.com)의 남상천(75) 소장이 사업하느라 잠시 손을 놓고 있었던 속기보급에 다시 나섰다. 최근 속기교육 책자 세권을 펴낸 데 이어 속기 지도교사 양성 프로그램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남 소장은 성균관대 1학년 때인 1956년 '남천식 속기법'을 창안했다. 57년 농림부 근무를 시작으로 20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속기교육에 정열을 기울였다. 63년 실업계 고교에 속기과정을 만든 데 이어 64년엔 문교부 검인정 속기교과서를 직접 썼다. 67년엔 사단법인 한국속기교육협회를 설립하고 이사장을 맡아 속기 지도교사 1000여명을 양성했다.

83년 식품제조회사인 대경산업을 창업한 그는 해태음료에 '보리텐' 원료를 공급했다. 볶은 현미 가공법에 관한 발명특허를 받은 뒤 이를 응진식품의 '아침햇살' 주원료로 공급해 돈도 벌었다. 그러던 그가 2001년 잘 나가던 회사를 매각하고 다시 속기 보급에 눈을 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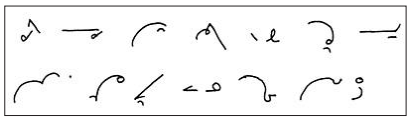
"속기를 배워 직업인이 되기 어려운 탓인지 주위에 속기학원이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내가 죽으면 속기도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추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잠을 이룰 수 없더군요."

남 소장은 이에 따라 성균관대·한양대·홍익대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속기교양강좌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대학 속기 지도자 양성 강좌를 내년 1월 17~22일 남천속기연구소에서 열기로 했다. 참가자에겐 교재를 무료로 제공하고 교육비 보조금 30만원도 지급할 예정이다. 중학교 특별활동 시간에 속기를 가르칠 교사에 대한 교육도 내년 1월 26~28일 성균관대에서 실시한다.

남 소장은 속기의 지속적인 보급을 바라는 마음에서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10억원대의 집을 사후 모교인 성균관대에 '남천 속기장학금'으로 기증하기로 최근 대학 측과 약속했다.

글=이용택 기자, 사진=신동연 기자

lytak@joongang.co.kr



남상천 소장이 속기로 쓴 글. '친애하는 중앙일보 독자여러분! 갑신년도 마지막 문턱에 와 있습니다. 한해를 깨끗이 마무리짓고 희망찬 새해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다.

미 '우수교사 100인'에 든 재미동포

백순하 캘리포니아 초등 교감

재미동포 1.5세인 백순하(36·미국명 신디 백) 교감이 미국 전역에서 가장 우수한 교사 100명에게 주는 '밸런 전국 교육자상'을 수상했다.

비영리재단인 밸런패밀리재단은 미 로스엔젤레스 오렌지 통합교육구 산하 캘리포니아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백 교감에게 상패와 상금 2만5000달러를 수여했다고 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백 교감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을 받게 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교장선생님과 교직원들의 도움으로 이같은 영광을 차지하게 됐다"고 동료 교사들에게 공을 돌렸다. 그는 재학생 750명 중 라틴계 학생이 90%에 이르는 이 학교에서 학력평가지수(API)를 29포인트 상승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 후보로 추천됐다.

백 교감은 다섯 살 때 이민해 UC어바인에서 수학과 사회학을 전공했으며 8년 전 교직에 입문해 편교사를 거쳐 교감으로 일하고 있다. 현재 USC에서 교육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LA 중앙일보=최인성 기자

백 교감이 학생들과 함께 수상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한국 온 니컬러스 케이지 부부 한국에 비밀리에 입국한 배우 니컬러스 케이지와 그의 한국인 아내 앨리스 김이 10일 저녁 서울의 호텔 한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뒤 호텔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

"힘 모아 공예산업 경쟁력 높일 것"

공예단체총연합회 초대 회장 하종철씨

"낙후한 공예산업을 경쟁력 있는 문화산업으로 키우려면 우선 공예단체들부터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한국공예가협회·한국공예학회·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 등 공예 관련 6개 단체를 주축으로 10일 출범한 한국공예단체총연합회의 하종철(57) 회장은 "공예인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신기술·신제품 개발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예가 1970년대 이후 줄곧 위축돼 왔다"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다양한 디자인과 색감 개발 등에 소홀했던 우리 공예인들의 잘못이 크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공예가 정부의 산업육성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일본은 1974년에 전통공예품산업진흥법을 만들어 공예산업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무원들이 도와주고 싶어도 관련 규정이 없어 도와주기 힘들다고 토로하는 실정이에요."

연합회는 내년부터 다양한 사업을 할 계획이다. 남북 공예문화교류전을 추진하는 한편 미국에서 대한민국공예대전을 열어 우리 공예품의 미주 수출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전통 공예촌 조성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 진주 출신으로 21세 때 옻칠공예에 뛰어든 하 회장은 96년부터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장을 맡아오다 이번에 연합회장이 됐다. 임기는 3년. 하지윤 기자

hjyun@joongang.co.kr

"직장 동료의 정, 학교 동창 못잖아"

14년간 '모토로라 동문회' 이끈 정동준씨

"학교 동창은 길어야 몇 년을 함께한 사이 아닙니까. 10년, 20년씩 한 회사를 같이 다닌 직장 동료 간의 정이 그보다 못하다 할 순 없죠."

최근 창립 14주년 기념식을 성황리에 끝낸 '모토로라 동문회'(모토로라 코리아의 퇴직사원 모임)의 정동준(73) 명예회장은 모임의 이름이 '동문회'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국내 퇴직자 모임의 효시 격인 모토로라 동문회는 그동안 사장부터 평직원 출신까지 평등하게 어울리는 독특한 분위기를 정착시켜 왔다.

"처음엔 재직할 때 호칭을 그대로 썼어요. 그런데 어느날 평사원 출신 퇴직 사우가 '동문회에서까지 꼴뚜기 필요가 있느냐'고 하더군요. 그 뒤 서로 'OOO동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1967년 모토로라 코리아 창립 때 입사해 22년간 재직하며 인사부장·인사담당 전무 등을 거쳤다. 퇴직 후에는 인사관리자문회사인 윌리엄 M 머서의 대표를 지냈다.

"87년 파업 때의 일입니다. 웬 40대 신사가 정문을 봉쇄한 노조원에게 '빨리 업무에 복귀하라'며 호통을 치는 거예요. 하도 고마워 인사를 했더니 그 분이 '내가 이 회사 생산감독을 했다. 퇴직해보니 여기만한 곳이 없더라'고 하시더군요."

그는 그때 퇴직하면 모임을 만들겠다고 결심했고, 퇴직 후 이를 실행했다. 동문회는 그동안 생산라인을 감자기 늘릴 때 숙련 인력(퇴직사원)을 공급하는 등 회사를 돕는 일에도 앞장서 왔다. 그는 줄곧 회장으로 있다가 이번 기념식 때 후배에게 회장직을 물려줬다. 신애리 기자

shiny@joongang.co.kr

이원희 스카우트연맹 총재 세계연맹 봉사대상 받아

이원희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가 10일 브루나이에서 폐막한 세계스카우트연맹 제21차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회에서 봉사대상(Distinguished Award)을 받았다. 이 총재는 2008년 세계 스카우트 총회 유치와 세계 스카우트 운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받았다.

상지대 총장에 김성훈씨

김성훈 중앙대 교수가 상지대 차기 총장으로 선임됐다.

학교법인 상지학원은 9일 이사회를 열어 내년 2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 강만길 총장 후임으로 김 교수를 4년 임기의 차기 총장으로 임명했다. 김 신임 총장은 서울대 농대를 졸업하고 미 하와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76년부터 중앙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농림부 장관을 지냈다.

송승환·이태원씨 명지대 전임교수로

세계적 공연 '난타'를 기획한 PMC 프로덕션 송승환 대표와 뮤지컬 '명성황후'에서 명성황후역을 맡는 등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 배우로 활동한 이태원씨가 내년 2월 명지대에 신설되는 문화예술학부 전임교수로 임용된다.

653만평 규모 태평양 섬 멜 깁슨, 159억원에 매입

영화 배우 멜 깁슨이 태평양의 섬나라 피지에 있는 653만평 규모의 마고 섬을 일본의 호텔체인으로부터 1500만달러(약 159억원)에 사들였다고 피플지가 8일 보도했다.

섬은 산호초로 둘러싸인 바다와 백사장이 있는 곳으로 현재 코코넛 농부 등 40명이 살고 있다.

피플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깁슨이 이 섬을 가족과 친구들을 위한 휴양지로 사용하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LA AFP=연합]

부 고

▶**김만원**씨(전 동해투자 감사)별세, **김동호**(A&D 공동대표)·**동환**(〃)·**현선**씨(경덕한의원장)부친상, **박상백**씨(송파구 한의사회장)장인상=10일 오전 4시 서울아산병원, 발인 12일 오전 5시, 3010-2293

▶**손서광**씨(전 바른 언론을 위한 시민연합 이사)별세, **손창원**씨(인터넷 MBC사원)부친상, **황지연**씨(조인스닷컴 마케팅팀 대리)시아버지상=10일 오후 2시 삼성서울병원, 발인 12일 오전 10시, 3410-6906

▶**주진봉**씨(전 벽산그룹 부사장)별세, **주홍**(대상 홍보실장)·**용성**씨(농협중앙회 율량동지점 차장)부친상, **추창호**(국민은행 방배역지점 차장)·**심의영**씨(금융감독원 부국장)장인상=10일 오전 2시 삼성서울병원, 발인 13일 오전 8시, 3410-6918

▶**마틴기유**씨(전 로레알코리아 사장)별세=9일 프랑스 생 투이 교회, 발인 14일 오후 2시, 3497-9500

▶**김규만**(사업)·**규훈**씨(치과병원장)모친상, **정윤해**씨(한국은행 감사실 부국장)장모상=10일 낮 12시 부천 세종병원, 발인 12일 오전 7시, 032-348-9332

▶**김길복**(사업)·**길남**씨(〃)모친상, **지웅상**(경상대 교수)·**김철호**씨(영컴상무)장모상=10일 0시 한양대병원, 발인 12일 오전 9시, 2290-9453

▶**김영진**씨(KT 서울강남망운용국 전송기술부장)부친상=10일 오전 7시 서울아산병원, 발인 12일 오전 6시, 3010-2295

▶**김윤재**(수림엘리베이터 대표)·**신재씨**(삼성테스코 전무)모친상, **원종호**씨(코네수림 부사장)장모상=10일 오전 11시 삼성서울병원, 발인 13일 오전 9시, 3410-6914

▶**박용만**씨(국정홍보처 주EU홍보관)부친상=10일 0시 인천 계산동 천주교회, 발인 12일 오전 6시, 032-551-5026

▶**심우명**씨(프라임개발 영업관리팀장)부친상, **박재규**(목사)·**강수석**(신성관리차장)·**최호용**(청강이엔씨 대표)·**여승철**씨(목사)장인상=10일 낮 12시 서울아산병원, 발인 13일 오전 8시, 3010-2235

▶**오항렬**씨(전 KBS 연수부장)모친상=10일 오전 6시 서울아산병원, 발인 12일 오전 7시, 3010-2292

▶**조규철**씨(프로야구 롯데 스카우트)장모상=10일 오전 1시 부산 침례병원, 발인 12일 오전 10시, 051-583-8902

▶**조석균**(우원티알 대표)·**옥균**씨(우성ENG 대표)부친상, **장경준**씨(목사)장인상=10일 오전 2시 서울아산병원, 발인 13일 오전 7시, 3010-2239

▶**조승수**씨(국회의원·민주노동당)장인상=10일 오후 5시 경주 동국대병원, 발인 12일 오전 7시, 054-776-9411

▶**한상근**(사업)·**상덕**씨(LG칼텍스정유 근무)부친상, **노승대**씨(LG칼텍스정유 상무)장인상=10일 낮 12시 전북 남원의료원, 발인 12일 오전 9시, 063-636-4014

▶**홍창수**씨(재 캐나다)모친상, **이찬재**(사업)·**김의홍**(〃)·**임호**(농수산물유통공사 기획실장)·**송영신**씨(재중 교수)장모상=10일 오전 1시 한강성심병원, 발인 13일 오전 9시, 2635-9092

사랑방

◆**행사**

▶**김병묵** 경희대 총장은 10일 중국 전문도서 1000여권을 기증한 리빈(李濱) 주한 중국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우근민** 명지대 총동문회장은 13일 오후 6시30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룸에서 정기총회 및 '명지인 송년의 밤'을 연다.

◆**수상=김상철** 금호미터텍 회장, **이영재** 한일월드 대표, **박성우** 보성산업 대표가 '2004 연세경제인'에 선정됐다. 시상식은 22일 힐튼호텔에서 열린다.

◆**학술회**

▶**이광택** 한국노동법학회장은 11일 오후 2시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제회의실에서 '노동시장의 변화와 노동법의 대응과제'를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연다.

▶**석종현** 한국토지공법학회장은 11일 오후 1시30분 전경련회관 특1회의실에서 '부동산 세제의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차인표·신애라 부부 1억 기부

탤런트 차인표(37·왼)·신애라(35)씨 부부가 10일 '차인표·신애라 아동사랑기금' 1억원을 아동복지전문기관인 굿네이버스(회장 이일하·왼)에 전달했다.

기금중 5000만원은 국내 결식아동과 피학대아동을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는 북한 육아원 아이에게 긴급의약품을 지원하는 데 쓸 계획이다. 굿네이버스는 또 이들 부부를 남북어린이 희망대사로 위촉했다. 김정수 기자

newslady@joongang.co.kr

인 사

◆**재정경제부**(국장급 전보)▶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장 오동환

◆**행정자치부**▶공보관 최민호▶정부청사관리소장 배흥수▶국가기록원장 박찬우▶국가전문행정연수원 총무과장 고용삼

◆**보건복지부**(4급 승진)▶통상협력담당관 홍정기▶질병관리본부 방역과장 박기동▶혁신인사담당관 김평윤▶기획예산담당관실 이상인▶보험급여과 전병왕▶정신보건과 우홍식

◆**농림부**(국장급 전보)▶감사관 허윤진▶축산국장 박현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정학수(국장급 승진)▶투융자평가통계관 이양호

◆**매일경제TV**▶미디어국장 겸 미디어전략부장 정성관▶편성심의실장 겸 해설위원 허준▶보도제작2부장 겸 미술부장 유호길▶사회생활부장 장용수▶증권부장 정병국▶보도제작1부장 성태환▶산업부장 정완진

'사람 사람'난은 독자 여러분의 사람방입니다. 우리 이웃의 살아가는 얘기와 선행, 재미있는 사연들을 싣고 있습니다. 부고·인사·세미나 등의 게재를 원하시는 분은 중앙일보 인물·독자부로 연락주십시오. 전화 02-751-5390, 팩스 02-751-5404, e-메일:opinion@joongang.co.kr